

NOBLIAN

THE SHILLA
ISSUE 180 / JULY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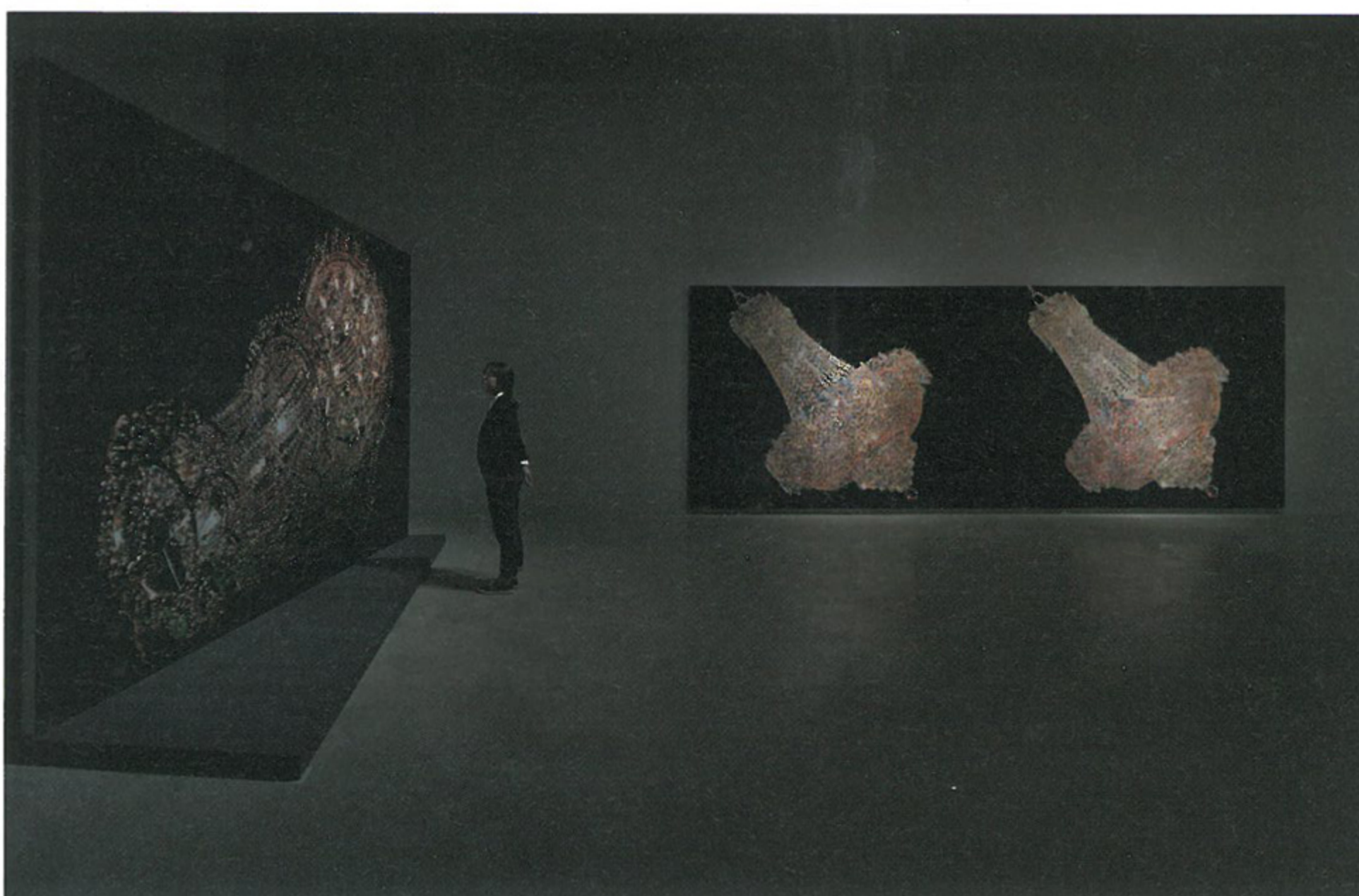
**Anywhere, anywhere
As long as it's out of the world!**

Poem by Charles Baudela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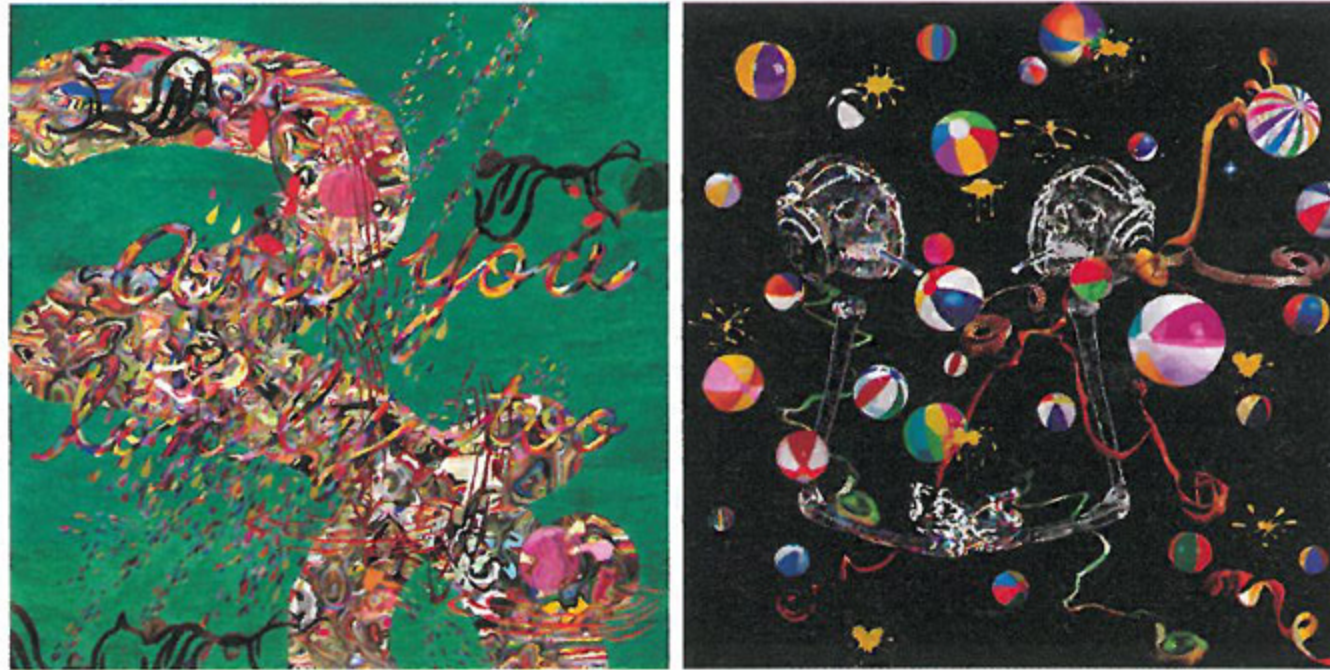
AN INTERPRETATION OF INCONGRUITY

EDITOR CHOI YUNJUNG
WRITER BAN EJUNG
COOPERATION KUKJE GALLERY(82-2-735-8449)



함경아, Installation View K3, 사진 Keith Park, 국제갤러리 제공

Kyungah Ham's artistic forte lies within her creative interpretations. The incongruity that lies behind the interpretation of digital signals as analog signals delivers the same delight that you would feel when searching for a cheap ornament, but unexpectedly coming upon a rare celadon from the Goryeo period.



함경아, 'Needing Whisper, Needle Country / SMS Series in Camouflage / Are you lonely, too? 02-001', 2014, 202×199cm, 국제갤러리 제공
함경아 '체스판이 동틀 녘까지 그들을 지체시킨다. 두 색이 증오하는 냉혹한 영역에', 2012-2013, 189×189cm, 국제갤러리 제공

〈유령 발자국 Phantom Footsteps〉이라는 타이틀을 건 함경아의 개인전(2015. 6. 4~7. 5, 국제갤러리 K2·K3)은 전시장 내부에서는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화면의 연쇄 때문에 놀라고, 이런 회화의 힘을 만든 제작 공정에 대한 사연 때문에 또다시 놀라게 된다. 벽에 줄줄이 걸린 캔버스는 형형색색의 안료로 표면을 정교하게 채운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려진 화면은 자수로 채워 넣은 자수 회화다. 작가가 수집한 다양한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콜라주하고, 그 콜라주된 이미지를 천 위에 디지털 프린팅한 뒤 그 천에 다시 색 자수를 한 땀 한 땀 올려 만든 자수 회화란 말이다. 전시장 두 곳(K2·K3)으로 나뉜 함경아의 개인전 중에서 K2 전시장 작업부터 보자. K2에 걸린 작품들의 표면에는 단어나 문장 그리고 물감이 소용돌이처럼 흐르는 모양새의 무정형 패턴이 뒤엉켜 있다.

함경아의 자수 회화는 후기 회화적 추상 이후의 추상적 모색 같기도 하다. 후기 회화적 추상의 하드에지를 극복하되 작가의 과도한 주관적 제스처에 의존하던 회화적 추상과도 다른 길을 간다. 일견 주관적 제스처처럼 보이는 화면이되 가까이서 관찰하면 자수 작업 특유의 '기계적인 표면성'이 기다린다.

함경아의 자수 작업은 그녀의 손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북한 자수 공예가들이 그녀의 하청을 받고 집단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외주 하청 제작. 동시대 미술의 상당수는 특정 분야의 기술력에 의존하기 마련이고, 작가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하청을 줘서 작업을 완성하는 시스템이 관행이 되었다. 함경아는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작가와 어시스턴트 사이의 직접 교류나 공정을 점검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중간국을 매개 삼아 북한 노동자에게 자수 작업의 제작을 맡겼다.

함경아의 미학적 포인트는 번역 행위에 있다고 한다. 자수 회화의 표면은 색채로 만드는 불가능해 보이는 소용돌이 패턴인데, 이런 패턴은 흔히 컴퓨터 모니터에서 만나는 합성 이미지이지 자수 작업에서 만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다. 색채 소용돌이 문양을 수공예 자수로 옮겼으니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번역한 반전이 생긴다. 또 서로 무관한 이미지와 단어나 문장을 한 화면 위에 정신 분열적으로 포개놓은 것도 장관이다. 거의 추상적인 전면 회화처럼 보인다. 최종 결과물인 작품이 뜻밖의 제작 공정의 산물인 사실 또한 반전이다. 시장경제 사회의 거주자의 아이디어를 계획경제 사회의 거주자의 노동력

으로 구현하는 반전 말이다. 남한 작가 아이디어의 하청을 받은 북한 노동자는 남한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작가의 원안을 북한풍으로 재번역해서 내놓았다. 북에서 작업을 넘겨받은 함경아는 '파스텔 톤으로 보낸 색감은 진해져서 온다. 북한 자수자들은 흐린 색보다는 진하고 강한 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는다. 결국 예상 밖의 반전의 번역이 개입된 꼴이다. 현란한 자수 회화가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시각 결과물이라는 점이 반전의 진수다.

이처럼 함경아 전시에서 마주치는 기대 밖의 반전은 저렴한 장식품을 찾기 위해 벼룩시장을 헤집다 고려 시대 제작된 희귀 청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반전에 빗댈 만하리라. 자수 공예로 일가를 이룬 북한이라고 한들 소용돌이치는 색채로 정신 분열적인 문양을 만든 전면적인 패턴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나. 좀체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뜻밖의 시각적 충격을 가능하게 하는 연출력이야말로 동시대 미술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PROFILE

반이정은 원래 꿈은 배우였으나 현재는 미술평론가다.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시사IN〉 등에 미술 평론과 시사 칼럼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새빨간 미술의 고백〉 〈세상에겐 어쩌면 스스로에게〉 〈사물 판독기〉 등이 있다.